

# 제주 용천동굴 출토 토기 자료의 의미\*

박 재 현\*

- I. 머리말
- II. 제주 용천동굴 출토 토기 검토
- III. 토기 자료로 본 제주 용천동굴
- IV. 맺음말

## 국문초록

본고에서는 제주 용천동굴에서 출토된 토기 자료의 의미를 찾고자 한다. 이를 위해 토기 자료의 검토를 실시하여 편년과 성격을 제시하였고 같은 시기의 기록을 살펴 새로운 결론을 찾을 수 있었다.

토기는 인간의 흔적이기에, 그 분포로 볼 때 동굴의 이용집단은 동굴 전체를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 본고에서 살펴볼 토기의 기종은 통일신라시대에 제작된 운반 및 저장기에 한정된다. 따라서 제주 용천동굴은 8세기 후반에서 9세기 전반경 당시의 시대 상황을 비추어 볼 때 탐라로 교역을 하기 위해 내려온 신라 상인집단의 ‘물품저장소’가 되며 출토된 토기들은 이를 위한 도구로 판단된다. 동굴의 주체인 신라 상인집단은 탐라에서 자체 생산이 어려운 쌀, 술, 소금, 철 등의 상품을 신라본토로부터 들여와 동굴에 보관하였다. 그리고 탐라 현지인들에게서 전복, 소 제품류, 굴, 해조류와 진주는 물론 약재

\* 본 논문은 국립제주박물관의 의뢰로 2018년도에 필자가 작성한 제주 용천동굴 학술보고서의 고찰을 수정·보완한 것임.

\*\* (재)제주문화유산연구원. park634@hanmail.net

(비자, 귀갑) 등의 특산품과 교환하였다. 이후 이 물품을 다시 본토나 일본 등으로 팔아 이윤을 챙겼을 것으로 추정된다.

결국, 제주 용천동굴에서 출토된 토기 자료는 당시 신라 상인집단과 탐라 간 교역체계 속에서 동굴의 성격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 자료라 여겨진다.

주제어 : 제주 용천동굴, 통일신라시대 토기, 신라 상인집단, 물품저장소

## I. 머리말

제주 용천동굴은 2005년 5월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만장굴 입구 삼거리 남동편에서 전신주 공사에 따른 작업 중 함몰로 인해 우연히 발견되었다. 이후 동굴은 국립제주박물관의 주도하에 다양한 분야의 학계에서 대대적인 조사가 이루어졌다. 조사결과를 통해 동굴의 학술적 가치가 인정되어 2006년 국가지정 천연기념물 제466호로 지정되고 2007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되었다.

본고와 관련하여 고고학계에서도 2009년~2010년 2차에 걸쳐 동굴 내부에 대한 학술발굴조사가 대대적으로 진행되었다. 조사결과 동굴 내부에서 토기를 비롯하여 철기·동물뼈·패각 등 인간의 생활과 관련된 다양한 유물이 보고되어 외부에 알려지기 시작하였다. 이에 필자도 국립제주박물관 학예연구실에 유물 관찰을 요청하였고, 보고서 작성의 기회를 갖게 되었다.<sup>1)</sup>

보고서의 고찰에서 유물, 특히 동굴에서 수습된 토기는 모두 통일신라시대의 호류와 병류로, 보고서 작성 당시에는 중심연대를 8세기 중·

1) 박재현, 「Ⅴ. 고찰-토기자료로 본 제주용천동굴에 대한 고찰-」, 『제주 용천동굴유적-제주 용천동굴 학술조사보고서』, 국립제주박물관, 2018. 유물의 실견과 보고서 작성에 참여할 수 있게 배려해 준 당시 김상태 학예연구실장(현 국립중앙박물관 고고역사부 부장)에게 지면을 빌려 감사드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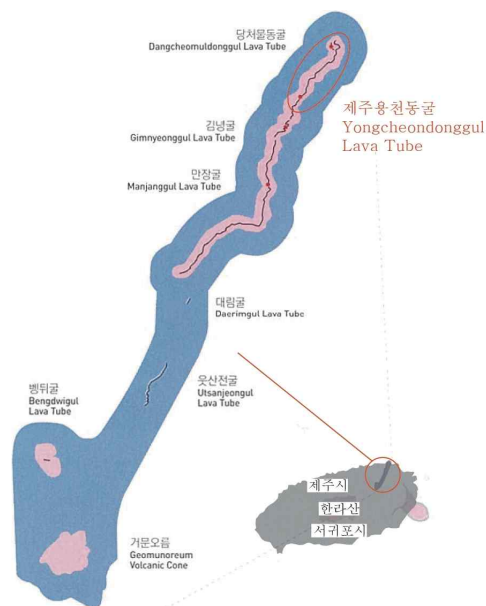
후반으로 추정하였다. 때문에 동굴의 존재는 이 시점 언저리에 외부로 알려지고 출입 및 이용이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았다. 아울러 동굴의 성격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알려진 ‘제사유적’설에 대한 반론을 제시한 바 있다. 이 설을 대신해 토기의 기종과 출토 양상을 살펴 동굴의 성격을 당시 탐라에 교역을 목적으로 온 신라 상인집단의 ‘물품저장소’로 추정한 바 있다. 다만 이를 입증하기 위한 관련 자료를 다양하고 깊게 접근하지 않은 채 여러 해석과 반론의 여지를 두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았다. 자료에 대한 정리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자료의 해석을 통해 당시 동굴 이용집단의 성격과 목적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접근했어야 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기왕에 작성된 보고서의 내용을 기반으로 하지만 당시 고찰과 구성을 달리하고자 한다. 먼저 Ⅱ장에서는 토기 자료를 정리하고 분석을 하고자 한다. 그리고 Ⅲ장에서는 분석된 내용을 통해 토기 자료의 출토가 갖는 의미를 논하는 것으로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 Ⅱ. 제주 용천동굴 출토 토기 검토

제주 용천동굴은 2005년에 만장굴 입구에서 전신주 공사를 하던 중 우연히 발견되었다. 이후 함몰부를 시작으로 동굴에 대한 대대적인 지질학적 동굴탐사조사가 진행되었다.

조사결과 제주 용천동굴은 만장굴-김녕굴-당처물동굴로 이어지는 약 10km 이상의 대형 동굴계 즉 ‘거문오름용암동굴계’의 일부임이 밝혀졌다. 조사과정에서



〈그림 1〉 거문오름용암동굴계

드러난 동굴은 용암에 의한 현무암동굴과 동굴생성물에 의한 백색의 석화동굴이 조화를 이루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동굴의 전 구간에서 통일신라시대의 생활유물인 토기류가, 하류 호수에서는 신종어류 등이 확인됨에 따라 지질학계는 물론 고고학계와 생물학계 등 여러 학계에서 크게 주목을 받은 바 있다.

본고와 관련 고고학 조사는 동굴에 대한 지질학 조사과정에서 인간의 흔적인 토기가 동굴 내부 곳곳에 확인됨에 따라 실시되었다.

조사는 국립제주박물관의 주도하에 2009년~2010년간 2차례에 걸쳐 학술발굴조사(수습조사)로 진행되었다. 조사결과 수습된 토기 자료 등은 모두 통일신라시대에 육지에서 제작된 것으로 파악되었다<sup>2)</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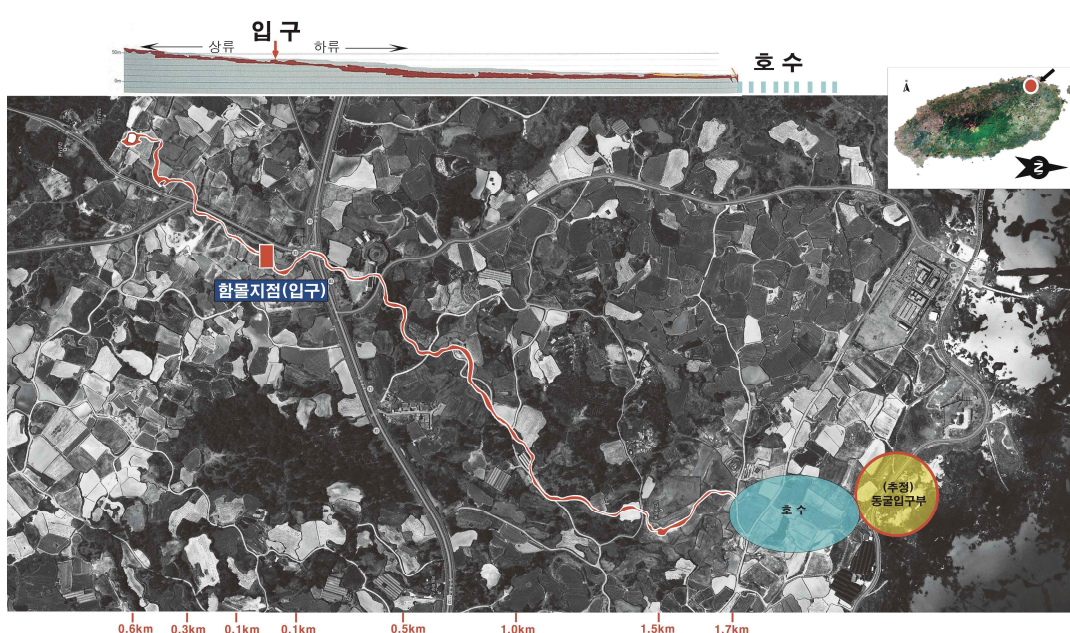
〈사진 1〉 제주 용천동굴유적 입구와 단면도

## 1. 토기의 분포 양상

보고서의 지질 분야에 따르면 동굴의 범위는 주굴과 지굴 약 2.6km와 해안으로 연결된 북단부의 호수길이 0.8km까지 합치면 약 3.4km이다.

2) 본고의 검토 대상은 동굴 내에서 출토된 토기류에 한하며 지질학 및 생물학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제외하였음을 미리 밝혀둔다.





〈사진 2〉 제주 용천동굴유적 위치 및 추정 배치도(필자 재구성)

이 동굴은 웅장한 내부와 아치형의 천정 그리고 용암폭포 등이 형성되어 있으며 특히 북단부의 호수는 용암동굴에서는 처음으로 보고된 유일한 사례라 밝히고 있다.

제주 용천동굴에서 수습된 유물로는 토기류와 철기류 등인데 토기류가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토기의 분포 양상을 살펴보면, 동굴 내 60개의 지점에서 완형 22점과 다량의 토기 파편이 출토되었다. 완형의 분포는 각각 함물지점인 입구~만장굴 방향의 남단인 상류 0.6km까지 6점, 입구~하류 1km까지 5점, 하류 1km~북단인 호수까지가 11점이다. 이 외 파편도 지점마다 수량의 차이는 있지만 일부 구간(하류 0.5~0.7km)을 제외하면 동굴의 범위 전 구간(3.4km)에 걸쳐 확인되었다.<그림 2><sup>3)</sup>

확인된 기종은 모두 호와 병으로 운반 및 저장기로 한한다. 기종 별 출토 위치와 조합을 살펴보면 입구~상류 0.6km까지가 장동병·호형병

3) 보고서에는 세부 공간적인 정보를 알 수 있는 입체적 도면(입면, 단면)은 제시되지 않았다. 때문에 본고는 제시된 도면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정보만 활용하였음을 미리 밝혀둔다.

· 단경호·장군, 입구~하류 1km가 장동병·호형병·장군, 마지막으로 하류 1km~호수의 경우 장동병·호형병·편구병·단경호·장군이다. 기종 중에서 편구병만이 호수 인근에 분포하는 점을 제외하면 어느 특정 구간으로 구성을 달리하고 있지 않고 거의 동일한 조합을 이루고 있다. 특히 주목되는 점은 그간 제주도 유적에서 출토되지 않았던 장군의 출토이지만 장군 역시 특정 위치에 한정되지 않는다.

한편 동굴 내에서 당시 위세품 및 제사 용기인 골호, 고배, 기타 금은세공품 등의 유물은 확인되지 않았다. 후술하겠지만 대호 역시 파악되지 않았다.

이로 보건대 동굴을 출입하던 사람들은 같은 시기의 같은 목적을 공유하는 집단이며 이들은 동굴 전체를 아울러 활용했음을 알 수 있다. 관련해서는 Ⅲ장에서 설명하겠다.



〈사진 3〉 동굴 내 유물 출토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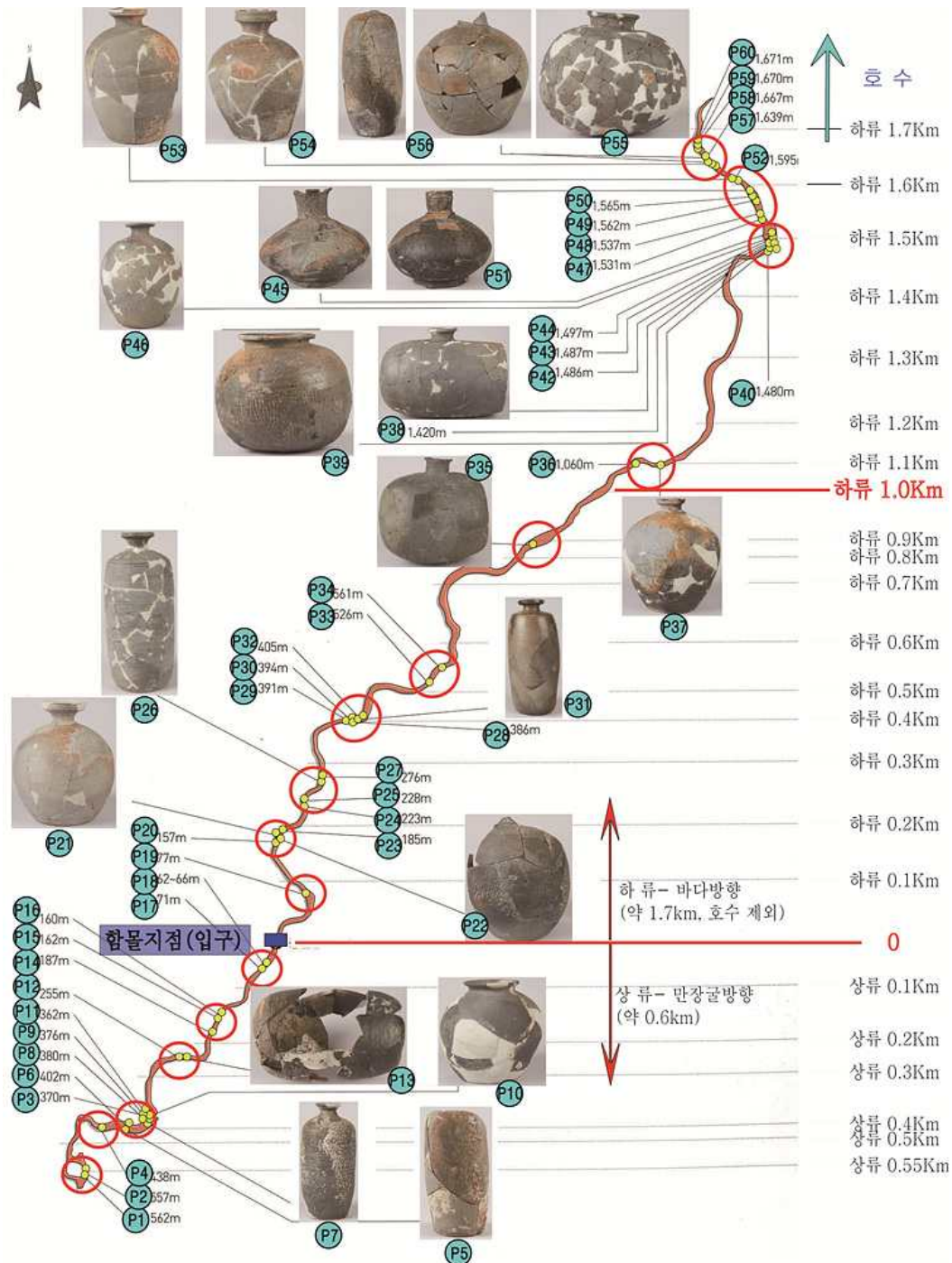


〈사진 4〉 유물 출토 세부



〈사진 5〉 동굴 호수 내 유물 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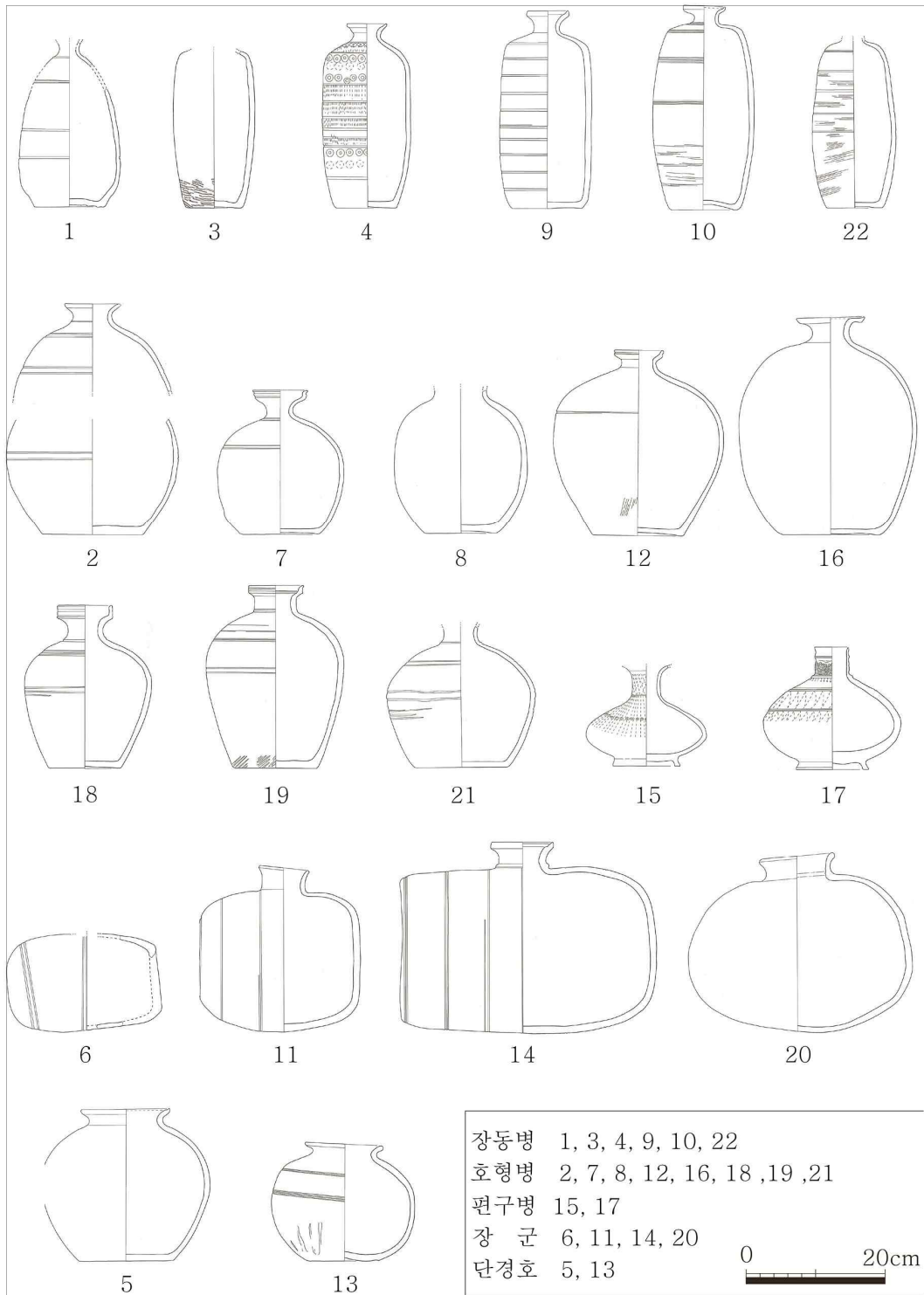


〈그림 2〉 제주 용천동굴유적 토기 분포도(필자 재구성)

〈표 1〉 제주 용천동굴 출토된 기종별 토기 현황

구분	기종	유물 번호	유 물 내 용					비 고
			문 양	계측치(cm)				
				기고	구경	동최 대경	저경	
1	장동병 (6점)	1	무 문	23.7	14.2	14.2	10.4	자연유
2		3	타날문	22.5	12.5	12.0	8.3	
3		4	인화문	25.0	5.4	12.0	8.9	
4		9	파상문	30.0	6.1	13.4	10.6	
5		10	무 문	30.1	6.2	13.4	9.8	녹유
6		22	무 문	24.4		12.0	8.2	
7	호형병 (8점)	2	무 문	30.5	8.4	26.2	15.3	
8		7	무 문	20.4	7.8	18.8	11.2	자연유
9		8	무 문	20.8		19.0	10.3	자연유
10		12	무 문	27.0	7.0	24.6	13.2	자연유
11		16	무 문	31.1	9.6	24.6	14.1	
12		18	무 문	23.6	7.8	19.4	10.6	자연유
13		19	무 문	26.5	7.8	19.8	12.2	
14		21	무 문	20.4		21.6	13.4	자연유
15	편구병 (2점)	15	인화문	16.5		19.8	10.8	자연유
16		17	파상문 인화문	17.7		19.8	10.5	자연유
17	장군 (4점)	6	무 문	14.0		22.0		자연유
18		11	무 문	24.2	7.2	23.3		자연유
19		14	무 문	27.1	8.7	36.0		
20		20	타날문	26.0	10.8	32.4		
21	단경호 (2점)	5	무 문	22.2	12.6	24.4	13.6	
22		13	타날문	15.4	10.6	19.0	10.2	





〈그림 3〉 제주 용천동굴 출토 토기 실측 도면

## 2. 토기 자료 분석

앞서 살펴보았듯이 토기자료 중 기종의 구분이 가능할 정도 완형으로 복원된 것은 22점뿐이며 대부분 파편으로만 수습되었다. 파편의 수량으로 보건대 동굴 내에는 상당량의 개체가 있었을 것으로 가늠이 된다. 그러나 비록 수량이 많기는 하나 필자가 실견한 결과 기종 구성은 의외로 매우 단순하다. 전체 토기의 기종은 장동병·호형병·편구병·장군·단경호로 모두 통일신라토기이다. 그리고 육지에서 생산되고 유통되는 환원염소성의 토기 즉 회청색경질토기(회색도기)로 용도는 모두 저장 및 운반용에 한한다. 이 절에서는 제주 용천동굴에서 출토된 토기의 기종과 문양을 파악한 후 타지역의 자료와 비교하고 관련 연구성과를 정리하고자 한다.

### 1) 장동병

장동병<sup>4)</sup>은 6점으로 상류에서 하류까지 전 구간에 걸쳐 확인된다. <그림 4>에서도 보듯 장동병의 일반적인 형태는 세로로 긴 원통형의 몸체에 편평한 저부에서 수직으로 꺾어 동체부로 길게 올라가다가 다시 거의 직각으로 꺾어 내만하여 견부를 형성한다. 그리고 견부의 중앙에서 다시 수직으로 폭이 좁은 구연부를 이룬다. 특히 아가리(구연부)가 좁은 점으로 볼 때 용도는 술이나 식수 등의 액체류를 저장하거나 운반할 때 사용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제주 용천동굴 장동병의 기형을 보면 구연부의 형태는 완형 외에도 산재한 파편을 통해 파악할 수 있었는데 크게 직립구연과 단순 및 반구형(부가구연)의 외반구연으로 구분된다. 그리고 복합인화문이 시문된 것과 견부 파상문이 시문된 것도 있지만 대부분 무문양이다.

제주지역 장동병의 출토지는 종달리패총 5지점<sup>5)</sup>과 제주 고내리유

4) 장동병은 연구자마다 토기의 부위의 형태에 따라 명칭을 달리하고 있지만 과거에는 동체부의 형태로 상하로 길다고 해서 '종병'이라고 불리기도 하였다.

적<sup>6)</sup>, 제주 용담동제사유적<sup>7)</sup> 등을 꼽을 수 있다. 종달리패총의 5지점의 장동병은 파편을 포함하면 유적에서 가장 많은 출토량을 보이는 기종이다. 하지만 완형으로 복원된 것은 단 2점에 불과하다. 이 중 5층에서 출토 장동병은 평저부이고 원통형의 동체부 상단에서 거의 직각을 꺾여 견부를 형성하였으며 구연부는 부가구연이다. 문양은 복합인화문으로 다변화문 2열(견부)→지그재그 점열문(동체상단)→연속마제형문(동체 중단)→다변화문(동체 하단) 순으로 시문되었다<그림 4-4>. 여기서 지그재그 점열문은 미야카와 데이치(宮川禎一)가 제시한 문양 시문수법 중 C수법에 해당하는데 연속마제형문에서만 나타나는 문양이다<sup>8)</sup>. 이 조합과 2종류 이상의 문양결합은 8세기 후반 통일신라토기의 가장 큰 특징이다<sup>9)</sup>.

본고와 관련 제주 용천동굴에서 출토된 장동병<그림 4-1>은 저부와 견부의 꺾임새가 상기 장동병<그림 4-4>보다 완만하다. 시문된 문양 역시 이중원문+원점문+이중원문(동체 상단)→4조 직선점열문(동체 중단)→이중원문+반원점문(동체 하단)으로 차이가 있다. 특히 동체 중단의 점열문이 주목되는데 기존 연구에 의하면 8세기 후반 이후부터 9세기 전반에 이르면 연속마제형문이 쇠퇴하고 대신 점열문과 운기문, 연주문 등이 주문양으로 대신한다<sup>10)</sup>.

반면에 고내리유적의 장동병은 기형이 거의 같지만 동체 중단과 상단으로도 추가적으로 파상문이 시문되어 있어 차이가 있다<그림 4-5>. 필자가 국립제주대학교 박물관에서 고내리유적 출토 토기류를 실견한 결과 인화문이 시문된 토기는 파악되지 않고 편병, 대호 등의 ‘나말여

5) 한국문화재단·제주문화유산연구원, 『2012년도 소규모 발굴조사 보고서Ⅳ-제주 3-』, 2015.

6) 濟州大學校博物館, 『濟州高內里遺蹟』, 2008.

7) 濟州大學校博物館, 『濟州市龍潭洞遺蹟』, 1993.

8) 윤상덕, 「인화문토기」, 『중앙문화재연구원 학술총서 20-신라고고학개론下』, 진인진, 2017, 91쪽.

9) 홍보식, 「물질자료의 편년-1. 토기」, 『중앙문화재연구원 학술총서 43-통일신라고고학개론』, 진인진, 2019, 53쪽.

10) 홍보식, 앞의 책, 53쪽.

초토가가 주를 이루고 있었다. 때문에 고내리유적의 중심시기는 제주 용천동굴유적보다는 다소 후행할 것으로 판단된다<sup>11)</sup>.

그런데 장동병은 이렇게 제주도 유적에서 다수 출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육지의 경우 경주 즉 신라왕경<sup>12)</sup> 일대나 경기지역 이성산성의 2차 저수지 등에서 극히 소량으로만 보고될 뿐 흔치 않은 기종이다. 이성산성의 장동병은 단 1점이 완형으로 보고가 되었는데 이 장동병은 일정 간격의 2조의 횡침선이 6줄이 돌아가고 사이로 5줄의 호형 점열문이 시문되어 있다<sup>13)</sup>. 신라 왕경의 생산유적으로 알려진 경주 화곡리 유적에서도 보고된 1,262점 중에서 단 2점에 불과하다<sup>14)</sup>. 경주 분황사와 재매정지에서도 완형으로는 소량만 출토되었다<sup>15)</sup>. 일본의 경우도 신라 왕경과 직접 교역을 하였던 나라의 후지와라쿄(藤原京, 694~710)<sup>16)</sup>와 후쿠오카의 고로칸(鴻臚館)에만 확인되나 그 수량은 많지 않다<sup>17)</sup>.

11) 박재현, 「토기로 본 제주지역 탐라후기의 대외관계」, 『호남고고학보』 69, 호남고고학회, 2021, 144쪽.

12) 國立文化財研究所, 『新羅 王京 發掘調査報告書 I(本文)』, 2002.

13) 심수정, 「二聖山城 出土 新羅土器 研究」,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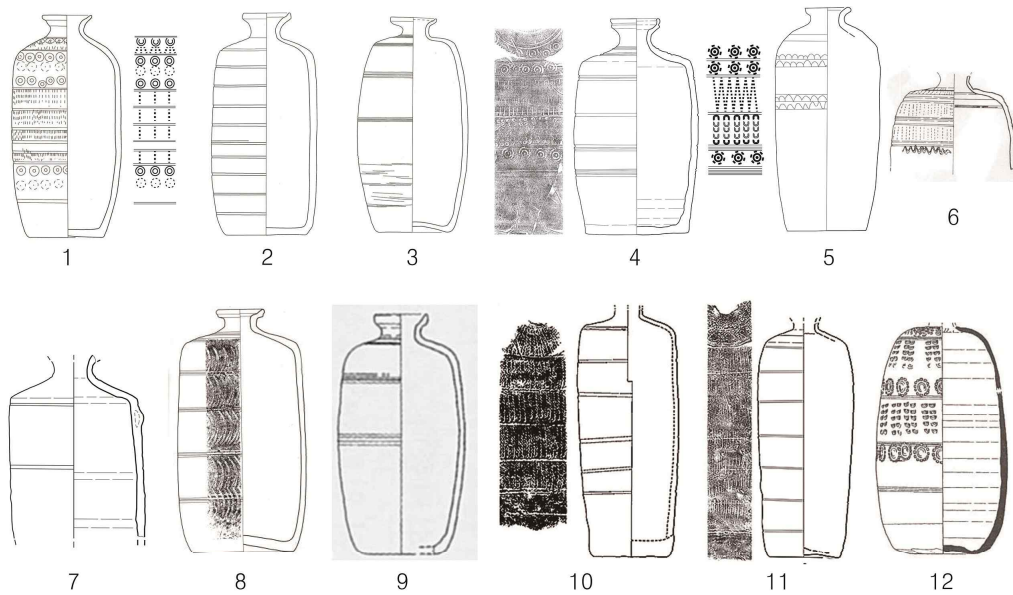
14) 성림문화재연구원, 『慶州 花谷里 生産遺蹟』, 2012.

15) 박미현, 「경주지역 삼국~통일신라시대 瓶 편년과 전개 양상」, 『영남고고학보』 90, 영남고고학회, 2022. 박미현은 장동병이 경주지역 병의 형식 IIb2식(종장형동)으로서 굽이 부착되지 않고 대부분 무문이며 문양이 있을 경우 다변화문과 종장문이 전면에 시문 되거나, 종장문류가 전면에 시문되고 있음을 파악하였다. 이를 통해 경주지역 장동병을 8C 후엽 이전부터 유행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16) 홍보식, 「Ⅱ. 토기-15. 일본 藤原京址 출토 신라토기」, 『세종문화재연구원 학술총서4 -統一新羅時代 歷年代資料集-』, 학연문화사, 2013, 67-68쪽. 이 유적에서 출토된 장동병은 58차 內裏東官衙區劃堀(SA6635) 주혈·포함층에서 출토 유물로 시문된 문양은 복합인화문으로 동체 상방으로 3치의 연속마제형문→5치 연속마제형문→다변화문→5치 연속마제형문→다변화문이다. 도성의 기능과 신라인화문토기의 편년안을 비교할 때 이 문양은 7세기 말에서 8세기 초로 제주 용천동굴의 문양보다는 이른다.

17) 洪潛植, 「日本 出土 新羅土器와 羅日交渉」, 『한국상고사학보』 46, 한국상고사학회, 2004.





1~3. 제주 용천동굴 4. 제주 종달리패총 5지점 5. 제주 고내리유적 6. 제주 용담동 제사유적 7. 경주 화곡리유적  
8. 이성산성 2차 저수지 9. 경주 왕경유적 10. 경주 분황사 11. 경주 재매정지 12. 日本 藤原京

〈그림 4〉 유적 출토 장동병 비교 유물(축척부동)

따라서 장동병이 생산지와 소비지에서 출토량이 적은 양상은 현재로서 그 용도가 일반적인 그릇처럼 일상생활 용기가 아닌 단순히 유통만을 위한, 상품을 실어나르기 위한 도구에 한하지 않았나 여겨진다. 그 이유는 제주지역 특히 패총유적의 경우 많은 출토량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이 파편으로 깨져 버려진 상태로 출토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당시 고급제품에서 확인되는 녹유가 시유된 것<그림 5-4>도 출토되는 것을 보면 장동병의 용도에 관해서는 보다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

## 2) 호형병

호형병은 8점으로 상류에서 하류까지 고르게 확인되었다. 호형병의 형태는 모두 평저부이고 구형의 몸통으로 형태상 단경호와 비슷하다. 하지만 배출구인 구연부가 좁아 액체류를 저장하는데 특화된 기종으로 판단된다. 유적에서 확인된 호형병은 구연단의 형태에 따라 단순형과

반구형으로 세분되며 모두 무문양이다.

호형병의 제주도 출토지로는 종달리패총 5지점, 제주 고내리유적 등이 있다. 종달리패총 5지점 5층에서는 1점의 완형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파편이다. 호형병의 기형은 완형 외에도 파편에서 확인되는데 저부는 평저부와 대각, 구연부는 외반형, 반구형으로 구분된다. 문양의 경우 7세기 후반 단일인화문<그림 5-5><sup>18)</sup>과 9세기대의 파상문이 시문된 것도 확인되고 있으나 무문양이 다수를 차지한다. 제주지역에서 출토된 호형병과 비교해 보면 특히 P21(하류 163m)에서 출토된 호형병<그림 5-1>은 제주 종달리패총 5지점 5층<그림 5-6>과 기형 및 기면 처리 방법에 있어서 매우 비슷하다. 두 호형병 모두 무문양에, 외면 일부에는 무색의 자연유가 시유되었다. 기형 역시 동체부에서 직립하여 경부를 이룬 후 구연단으로 2조의 조의 띠(요)면을 넣어 부가구연을 형성하였다. 도면에서 확인된 계측치 역시 거의 비슷하다. 이외의 호형병 역시 동최대경이 동체부 상단에 위치한 것과 경부의 둘레를 제외하면 문양이나 구연부의 처리한 형태 등은 매우 유사하다.

육지의 경우 호형병은 6세기대 고분에서도 뚜껑, 완 등과 동반되어 출토되고 있어 이미 삼국시대부터 제작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그림 5-9>. 다만 통일신라시대에 들어서는 장동병과 마찬가지로 그 출토량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앞서 신라왕경의 생산유적으로 알려진 경주 화곡리유적에서도 9점(2.7%)에 불과하다. 이 기종 역시 쓰임새가 주로 액체류의 상품을 저장하거나 운반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18) 박재현, 앞의 글, 2021, 157쪽. 종달리패총 5지점에서 확인된 호형병의 밀집시문 단일인화문은 7세기 후반으로 편년된다.



〈그림 5〉 유적 출토 호형병 비교 유물(축척부동)

### 3) 편구병

편구병은 2점으로 모두 하류 지점에서 출토되었다. 편구병은 형태로 볼 때 술 종류나 기름 종류 등의 액체류를 담는데 사용된 것으로 판단된다.

기존 연구사례에 의하면 편구병은 6세기 후반에서 7세기 초로 편년 이 되는 분묘에서 출토되고 있어 7세기대에 이르러 본격적으로 제작된 기종으로 보고 있다. 계보는 6세기 후반대에는 구경이 짧고, 동체가 구 경에 가까운 ‘평저병’에서 찾고 있다. 기종 명칭은 부가구연장경호, 대 부병, 편구형 병류, 편구동병 등으로 다양하게 분류되기도 하였다<sup>19)</sup>. 편 구병은 경주 화곡리유적, 익산 미륵사지, 보령 진죽리유적, 장도 청해 진, 시흥 방산동유적, 강화 선두리유적, 평택 궁리유적 등 8세기에서 9 세기를 지나 10세기 후반으로 편년되는 생산유적 및 생활유적, 사찰유

19) 李東憲, 「統一新羅土器 研究」,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2, 99쪽.

적 등 다양한 유적에서도 출토되고 있다<sup>20)</sup>. 따라서 편구병은 삼국시대부터 통일신라시대를 거쳐 나말여초기까지 존속된 기종으로 볼 수 있겠다.

제주지역에서 출토유적으로는 제주 용천동굴을 포함한 종달리패총 5지점, 제주 고내리유적, 제주 용담동 제사유적 등을 꼽을 수 있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그림 6-1>과 <그림 6-2>는 제주 용천동굴에서 출토된 것으로 두 점 모두 표면에 자연유가 시유되었고 대각이 처리방식이 거의 동일하다. 하지만 동체부의 형태는 타원형으로 비슷하나 기고 대비 외경된 동체부 최대경과 끝의 각이 전자에 비해 다소 길고 좁다. 구경부의 경우 전자는 길고 끝이 외반되는데 반해 후자는 짧게 직립되어 마무리가 되었다. 다만 둘 다 나말여초기에 나타나는 동체부가 주판알형태와는 달리 끝이 뾰족하지는 않고 둥근 편<sup>21)</sup>으로 보다 선행하는 기형이다.

문양의 경우 전자는 경부에 점열문을 사선으로 반복 시문하여 ‘X’형을 이루고 있으며 동상단에서 동중단까지 점열문→단치구의 이중원문→점열문 순으로 시문되었다. 이에 반해 후자는 경부에 5조의 파상문이 밀집되어 시문되었으며 동상단과 동중단에 2조의 횡침선을 그은 후 각각 그 아래에 점열문이 지그재그로 시문되었다. 연속마제형문이 없이 점열문과 파상문의 문양조합으로 볼 때 상기 장동병처럼 8세기 후반에서 9세기 전반에 제작된 것으로 판단된다. 각각의 시문된 문양은 광주 산월동 독매유적 출토품<그림 6-5, 광주박>과 양산 물금유적 출토품<그림 6-6, 김해박>과 유사하다. 종달리패총 5지점 출토 편구병은 파편으로 확인되었다. 도면으로 볼 때 기형은 상기 두 유물보다 동최대경의 각이 클 것으로 보인다. 시문된 문양은 단치구의 동상단 원점문+지그재그 점열문→동중단 원점문이다<그림 6-3>. 반면에 <그림 6-4>는

20) 한혜선, 「羅末麗初 陶器扁球瓶의 연원과 자기로의 변안」, 『韓國中世考古學』, 창간호, 2017. 11세기대의 유적인 강진 삼흥리 및 서산 무장리 등과 같은 요지에서는 더 이상 도기로 제작된 편구병이 출토되지 않는다.

21) 李東憲, 앞의 글, 2022, 101쪽. 편구병의 동체부 변화는 구형→타원형→편구형(바둑알형)→주판알형(마름모꼴)로 변화한다



위 세 편구병보다 동최대경 끝이 뾰족하여 마름모꼴을 취하고 있으며 무문양이다.

아래 <그림 6-7>은 용담동 제사유적의 편구병의 파편을 도상복원한 것으로 실제 경부와 동체 일부만이 남아 있다. 형태는 마름모꼴의 동체부에 잔존한 부분으로 음각된 선문이 시문되었다. 고내리유적의 편구병의 형태는 대각이 없이 동체부는 마름모꼴이다<그림 6-8>. 동반된 유물은 9세기대 이후의 호형병, 파상문이 시문된 장동병과 대부호, 그리고 편병과 주름문병이다.



<그림 6> 유적 출토 편구병 비교 유물(축척부동)

#### 4) 장군

장군은 상류에서 1점, 하류에서 3점, 총 4점이 출토되었다. 장군은 제주도에서 유일하게 제주 용천동굴유적에서만 확인되었다.

장군은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물, 술, 간장 따위의 액체를 담아서 옮길 때에 쓰는 그릇으로 정의하고 있다. 일반적인 기형은

옆으로 긴 동체부에 상단으로 구연부가 있는 형태로 그에 따라 횡병, 장병, 장본, 장분 등의 명칭으로 사용되어 왔다.

용도에 따라서는 ‘똥장군, 오줌장군, 거름장군’을 칭하기도 하였다. 한 반도(남한지역) 장군의 기원은 4세기 중엽~5세기 중엽 몽촌토성 출토 7호 저장공 출토품으로 액체의 저장·운반의 목적으로 사용되었다. 반면에 (고)신라시대에는 주로 부장하는 음식을 담는 제기로 사용되었던 것이 통일신라시대부터 그 이후까지 일상용기로서 다시 액체를 저장·운반의 목적으로 사용되었다<sup>22)</sup>.

한편 제주 용천동굴에서 출토된 장군은 명목상 대형과 소형으로 구분된다. 하류인 호수 쪽으로 갈수록 크기가 커지는 경향이 있다. 기형을 보면 몸체의 한쪽 측면은 둥글게, 다른 한쪽 측면은 편평하게 하여 비대칭으로 처리하였다. 그리고 단순형의 구연부에, 문양으로는 평행문이 타날된 것<그림 7-1>과 반구형 및 단순형의 구연부에, 무문양이지만 다수의 횡침선을 그은 것으로 구분된다<그림 7-2, 3>. 신나현의 구분에 따르면 전자는 Aa나2형식으로 5세기대에 등장하여 8세기대까지 상당히 긴 기간 동안 사용된 형태이다. 경주 천마총·경주 경마장 유적·울산 약사동 북동유적 등의 출토품과 비교가 가능하다. 반면에 후자는 Cc나1형식과 Cd나1형식으로 경주 안압지·경주 동천동 696-2번지 유적·울산 복산동 손골 유적·익산 미륵사지 등의 출토품과 유사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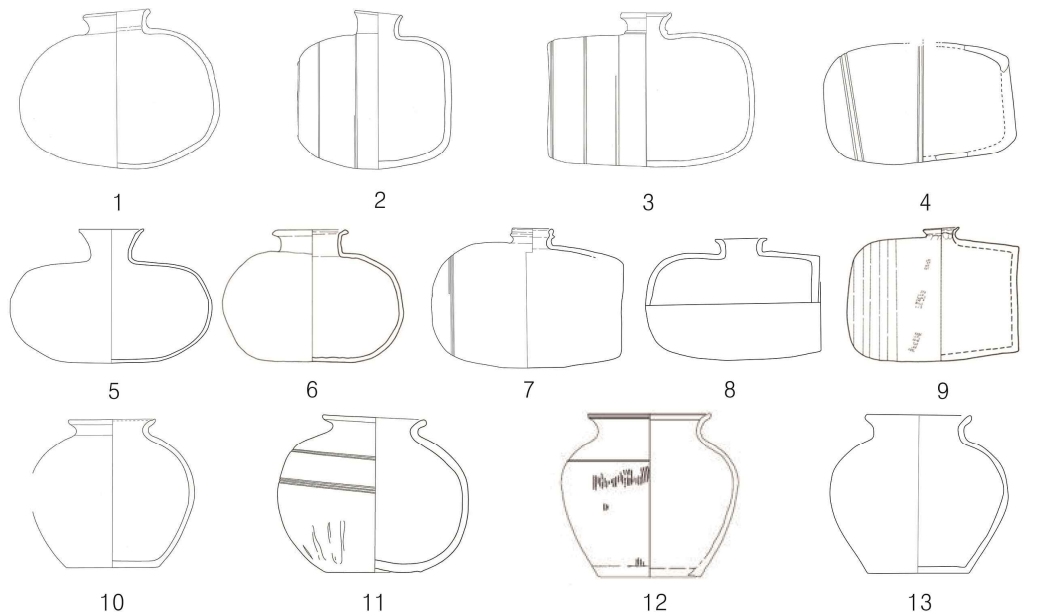
## 5) 단경호

단경호는 P39(하류1,480m 부근)에서 단 2점만이 출토되었다. 단경호는 한반도에서 가장 일상적인 저장 용기이지만 부장품으로 특히 삼국 시대에는 무덤에서 많이 사용되는 기종이다.

22) 신나현, 「고대장군의 변천과 사용」, 『한국상고사학보』 105, 한국상고사학회, 2019, 254쪽. 신나현은 장군이 출토된 유구의 성격에 따라 장군의 용도 변천을 구분하였다. 백제와 통일신라의 경우 주로 생활유구에서, (고)신라는 매장유구에서 많은 출토량을 보인다.

제주 용천동굴에서 출토된 토기 중에서 유일한 항아리(壺)이다. 다른 기종들이 주로 액체류만을 저장하기 위함이라면 단경호는 구연부가 넓어 액체류 외에도 곡류, 소금, 철 등은 다양한 물품을 저장할 수 있는 기종이다. 기형은 살짝 들린 평저부에 짧은 경부와 구연단에 띠(요)면을 갖추고 있어 이미 삼국시대 후반부에서부터 정형화된 것이 그대로 이어져 온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에서 단경호의 출토는 종달리 패총 5지점, 광지리 패총 4지구 2층과 3층<sup>23)</sup>, 삼도동유적(북초등교) 3단계 수혈유구<sup>24)</sup>, 제주 용담동제사유적 등을 꼽을 수 있다.



장군 1~4. 제주 용천동굴 5. 서울 몽촌토성 6. 경주 방내리 고분  
7. 경주 동천동 696-2번지 8. 익산 미륵사지 9. 울산 북산동 손골유적  
단경호 10~11. 제주 용천동굴 12. 경주 동천동 고대도시유적 13. 익산 미륵사지

〈그림 7〉 유적 출토 장군과 단경호 비교 유물(축척부동)

23) 濟州大學校博物館, 『濟州郭支貝塚』, 1997.

24) 제주문화유산연구원, 『제주 삼도동유적(북초등길 22번지, 북초등교 다목적회관 부지)』, 2016.

### 3. 토기 자료의 성격과 편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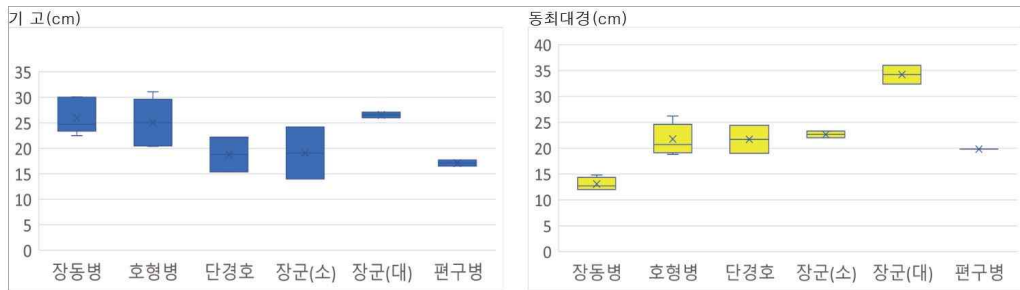
지금까지 제주 용천동굴유적에서 출토된 토기 자료를 분포 상황과 기종 별로 기형 및 문양을 중심으로 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토기의 분포는 비록 하류 1.5~1.7km 구간에 다수 확인되기는 하지만 어느 한 지점에 집중해 있지 않고 동굴의 전체에 걸쳐 확인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별도의 지정된 공간이 아닌 전 구간을 산개하여 활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각 지점 별로 기종의 조합이 차이가 없다는 점은 이 곳이 동일한 성격의 사람들이 집단을 형성하고 동굴 전체를 아울러 이용하였음을 반증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재지계의 고내리식토기는 전혀 확인되지 않았으며 모두 통일신라시대에 육지에서 유입된 기종으로 구성은 매우 단순하다. 그리고 모두 운반 및 저장 용기에 국한되며<sup>25)</sup> 용도와 함께 파악된 사실 하나는 기종별 규격화다. 아래 <그림 8>은 앞의 <표 1>에서 토기 자료의 기종별 기고와 동최대경을 나타낸 그래프이다. 기종 간에 크기의 차이는 있으나 각각 기종의 규격은 거의 동일함을 알 수 있다. 이로 보건대 서로 다른 기종 간에는 담긴 상품의 종류가 차이가 있겠지만 각각의 품목과 수량은 규격을 맞춘 것으로 여겨진다.

이처럼 한정된 기종의 선택과 기종 별 규격화는 상품의 유통과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을 여겨진다. 즉 일률적으로 확정된 상품에 대해 운반선(배)에 적재하고 이동하여 이후 동굴에 저장하며 다시 소비지로 다시 이동하는 과정 즉 일련의 유통과정에서 상품을 담고 있는 토기가 차지하는 공간(높이와 면적)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함으로 판단된다.

25) 22점의 완형 이외에도 수습된 파편은 장동병과 호형병의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8〉 기종별 기고와 동최대경

다음으로 기종과 함께 제주 용천동굴의 토기 자료의 편년설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문양이다. 유적 출토 토기 자료에서 확인되고 있는 문양은 대부분 무문양이나 일부 장동병과 편구병에서 인화문과 파상문이 확인된다. 상기하였듯이 인화문의 전개과정과 관련된 기존 연구에서는 8세기 후반 이후부터 9세기 전반 시점에 연속마제형문을 대신하여 점열문이 주된 문양으로 등장한다고 보고 있다. 제주 용천동굴에서 출토된 문양은 점열문이 주문양으로 하여 이중원문과 반원점문이 조합을 이루는 복합인화문이다. 그리고 파상문도 확인되고 있다. 이러한 문양의 구성은 미야카와 데이치(宮川禎一)의 4b, 5a식과 윤상덕의 Ⅷ~Ⅸ단계<sup>26)</sup>, 이동현의 Ⅸ~Ⅻ단계<sup>27)</sup>와 비교할 수 있겠다.

한편 <그림 9><sup>28)</sup>는 장도 청해진유적, 익산 미륵사지, 영암 구림리 유적, 보령 진죽리유적에서 보이는 편병, 주름문병 그리고 대호 등으로 기종으로 소위 ‘나말여초토기’<sup>29)</sup>이다. 해당 기종들은 제주 용천동굴에서 출토된 기종보다 후행하는 것으로 제주 용천동굴에서는 단 1점도 출토되지 않았다<sup>30)</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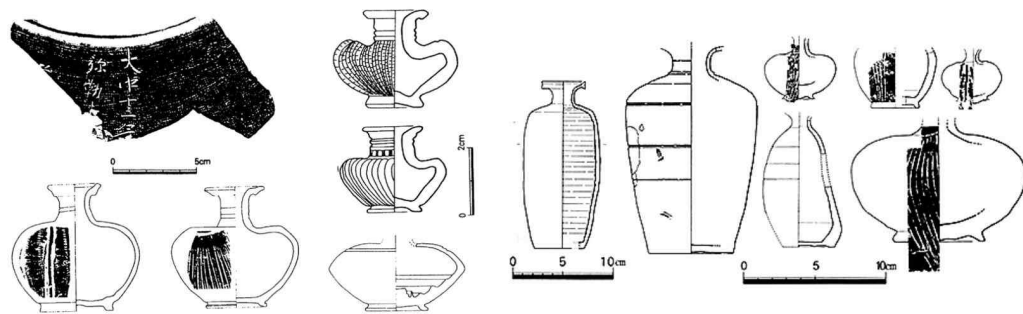
26) 윤상덕, 앞의 책, 93쪽.

27) 李東憲, 앞의 글, 169-171쪽.

28) 박미현, 앞의 글, 230쪽.

29) 朴淳發, 「遺物에 대한 考察-土器・磁器」, 『聖住寺』, 忠南大學校博物館, 1998.

30) 박재현, 앞의 글, 160쪽. 이글에서 필자는 제주도에 출토되는 여러 ‘나말여초토기’는 동반된 중국제 자기, 철제 술 등과 함께 장도 청해진유적 등의 것과 유사함을 들어 장보고 해상세력과 관련된 자료로 보고자 하였다.



〈그림 9〉 나말여초토기 일괄(좌: 미륵사지, 우: 장도 청해진유적)  
(박미현, 앞의 글, 2022, 230쪽 인용)

따라서 기종과 문양의 구성으로 보건대 제주 용천동굴에서 출토된 토기 자료는 대략 8세기 후반대에서 9세기 전반까지로 ‘나말여초기 이전’으로 편년을 지을 수 있겠다<sup>31)</sup>.

이처럼 출토된 토기 자료의 편년은 곧 제주 용천동굴을 이용하였던 집단의 존속기간을 의미한다. 그리고 전 구간에 걸쳐 분포하고 있는 토기의 수량으로 볼 때 그들은 동굴을 대략 50년 내외의 기간 안에 집중적으로 활용하여 이후에는 빠져나간 것으로 추정된다<sup>32)</sup>.

31) 보고서의 고찰에서 필자는 유적의 편년을 8세기 중·후반으로 지었지만 본고를 작성하면서 수정하게 되었다. 최근 통일신라 토기의 연구 경향은 기존의 문양 위주의 연구에서 벗어나 유구와 유물의 동반관계, 역연대 자료와 동반유물의 비교, 각 기종의 세부 기형변화의 관찰 등 새로운 연구방법이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다. 하지만 비록 새로운 방법이 시도되고는 있지만 특히 편년과 관해서는 여전히 인화문의 문양 분석이 주가 되고 있다.

32) 동굴 내에서 후행하는 유물이 확인되지 않은 점은 제주 용천동굴의 신라 상인 집단이 이후 나말여초 토기로 대변되는 장보고 해상세력의 활약과 그 세력에 의한 통합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뒤 각주37 참고). 관련해서는 필자의 전고에서 제시하였지만(박재현, 앞의 글, 2021) 차후 보다 구체적인 연구 성과를 제시하도록 하겠다.

### Ⅲ. 토기 자료로 본 제주 용천동굴

#### 1. 기존 연구사례에 대한 문제 제기

제주 용천동굴의 성격 규명에 관한 연구는 강창화가 유일하다. 강창화는 유적에서 수습된 유물을 통해 제주 용천동굴유적의 성격을 ‘제사 유적’으로 보았다. 그는 유적에서 수습된 토기류의 기종을 당시의 고급 그릇으로 제기(祭器)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았다. 특히 출토된 토기 중에 일부를 대호(大壺)로 하여 이를 제사 행위의 필수용기로 보고 제주 용천동굴의 성격을 부안 죽막동유적과 제주 용담동제사유적과 같다고 보았다. 아울러 동반된 동물 뼈 및 전복껍데기와 철제품 등의 유물은 제사 행위와 관련된 도구라 하였다. 그리고 출토된 유물을 통해 그는 유적의 편년을 7세기 말에서 8세기 말로 보았다. 이를 통해 이 시기에는 동굴 내에서 제사 행위가 성행하였고 제사의 주체를 탐라국의 지배층으로 추정한 바 있다<sup>33)</sup>. 이를 참고로 하여 이청규도 동굴 내에 출토된 유물의 양상을 통해 제주 용천동굴을 현지마을의 안녕을 비는 마을 제사유적으로 보았다<sup>34)</sup>. 그러나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제주 용천동굴에서 출토된 유물의 구성과 그가 사례로 들었던 상기 제사유적들이 제주 용천동굴과 입지가 다르다는 점이 파악되었다. 즉 같은 성격의 제사유적으로 보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생각되기에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

부안 죽막동유적은 변산반도 서쪽 끝 마을인 전북 부안군 변산면 격포리의 해안절벽에 자리하고 있다. 유적은 바다 조망이 유리한 절벽 끝의 평탄면에 자리하고 있는데 이 작은 공간 내에서 원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는 다양한 유물이 확인되었다. 이에 죽막동유적 보고자는 물론 이후 전공자까지 입지와 유물의 내용을 통해 이 유적을 항해의

33) 강창화, 「9. 고고학」, 『2009 용천동굴 종합학술조사 보고서』, 제주특별자치도·(사)한국동굴연구소, 224쪽.

34) 이청규, 『해상활동의 고고학적 기원과 전개』, 景仁文化社, 2016, 317쪽.

무사 안녕 등을 위한 ‘해양제사유적’으로 보고 있다. 이에 강창화는 유물의 내용만 놓고 제주 용천동굴유적을 동일 성격의 유적으로 보고자 한 것이다.

그러나 필자는 그가 제시한 것과는 달리 입지에 있어서 제주 용천동굴이 기존의 (해양)제사유적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래 <표 2>는 호남지역의 해양제사 유적 사례에서 제주 용담동제사 유적과 일본 오키노시마유적<sup>35)</sup>을 추가한 표이다. 각각의 유적별로 입지는 물론 제사터가 바라보는 방향(=제사 대상)을 제시하였다.

〈표 2〉 호남지역의 해양제사 유적 사례  
(유병하·최지향, 앞의 글, 2014, 163-171쪽 재구성)

유적	입지	제사대상	출토유물	비고
부안 계화도	섬 계화산 정상 (봉수대 후측)	바다	신석기시대 토기	
여수 돌산세구지	섬 산 곡간부	바다	청동기시대 토기, 원삼국시대 토기 지석묘 인접	
서천 옥북리	구릉 정상	바다 평야	청동기시대 토기, 석기류(석검, 지석, 석도)	
나주 장동리수문	패총 낮은 구릉	영산강 주변	초기철기시대~ 원삼국시대 토기 (점토대토기, 석기, 소형토기, 복골 등)	
김제 심포리	섬(간척지) 진봉산 북동사면	바다 만경강 입구	3~6세기대 토기편	
부안 죽막동	해안절벽 평탄지	바다	토기류(마한·백제·가야·고려) 자기류(중국제 청자, 고려청자, 조선백자) 석제모조품, 각종 철기류, 동경, 유리구슬 등	
영암 월출산	월출산 정상 남사면	바다	8~9세기대 향로뚜껑, 토기병, 토제마, 철제마, 향완, 정병, 접시, 완, 백자대접 등	
신안 흑산도	섬 상라봉 정상 (봉수대 후측)	바다	주름문병, 편병, 철마 등	
완도(장도) 청해진	섬 매납유구	바다	9세기대 토기류, 철정, 철반, 청동편병 등	
광양 마로산성	마로산 정상 (산성 내부)	광양만 섬진강 입구	9~10세기대 토기류, 해무리굽 백자, 은제요대, 청동향로, 납석제 용기, 기와, 철기류 등	

35) 宗像大社, 『海の正倉院 宗像 沖ノ島神寶』, 平成4(19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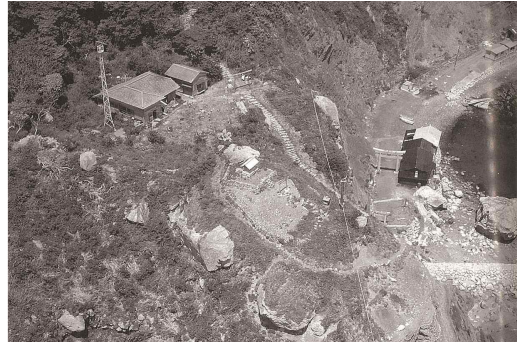
유적	입지	제사대상	출토유물	비고
제주 용담동	섬 구릉 북사면	바다	통일신라시대 토기류, 중국제 청자, 과대 등	추가
일본 오키노시마	섬 남단	바다	토기류, 청동거울, 벽옥제 팔찌, 옥기, 금동제품, 철제품, 석제모조품 등	추가

위 표에 제시된 출토된 유물로 보건대 호남지역을 포함한 남해안 일대 그리고 멀리 대한해협 인근에 이르기까지 신석기시대 이래 오랫동안 해양제사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유적의 입지는 공통적으로 해양활동의 거점이 되는 섬, 반도의 끝(절벽), 그리고 강의 입구에 자리하고 있다. 또한 그 중에서도 주변보다 높은 산정이나 구릉에 점하고 있다. 즉 제사유적의 입지는 요충지에 바다가 앞에 펼쳐지고 주변보다 높아 조망권을 확보한 개활지라는 점이 공통이다. 한편 해양제사를 하는 이유는 지금과는 달리 근대 이전은 목선 항해로 배의 구조와 항해술의 제한이 있어 해양활동 중에 조난, 난파, 화재 등을 마주할 수 있으며 때로는 선상 반란이나 해적의 피습 등이 잠재하였다<sup>36)</sup>. 따라서 제사를 관장하는 이는 집단의 수장으로서 집단의 결속은 물론 그들이 지향하는 뚜렷한 목적과 그 달성을 향한 강한 의지 및 안전 등을 공개적으로 표출할 필요가 있기에 위와 같이 거점이자 제사의 대상이 한눈에 조망되는 개방된 곳에 입지를 선택하여 제사를 시행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제주 용천동굴은 이와는 달리 외부로부터 폐쇄되고 단절된 곳이다. 이와 같은 입지가 과연 위 <표 2>에 나열한 제사 터와 같이 일정의 집단과 그 우두머리가 자신이 지향하는 목적 달성의 의지와 집단의 안녕을 바라고 알릴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36) 유병하·최지향, 「호남지역 선사와 고대의 제사」, 제22호 호남고고학회 학술대회, 호남고고학회, 2014, 161쪽.



〈사진 6〉 제주 용담동 제사유적



〈사진 7〉 일본 오키노시마 제사유적

다음으로 동굴에서 출토된 토기의 구성 문제다. 앞서 제주 용천동굴에서 출토된 토기는 모두 통일신라시대에 제작된 회청색경질토기(회색도기)로 호와 병에 한정된다. 이 기종들은 고체류 내지는 액체류를 저장 및 운반하기 위한 것으로 교역(유통)을 위한 도구인 셈이다. 그리고 유통의 효율을 위해서 기종 별로 규격화되었다.

그런데 제주 용천동굴에서 출토된 토기 중에는 제기로 사용할 만한 당시의 고급기종인 연결고리호(골호), 고배 등의 토기는 물론 대호 역시 단 한 점도 파악된 바 없다. 대호는 전장에서도 밝혔듯이 통일신라시대 후반기 즉 나말여초기의 대표적인 기종으로 일상생활 공간에서 음식이나 음료 등을 오래 두고 사용하기 위한 저장 및 숙성 용기이지 제사용기가 아니다. 한편으로 주목되는 점은 제주 용천동굴 내에서 같은 시기의 재지 유물인 고내리식토기가 단 1점도 확인되지 않음은 물론 통일신라토기의 대표 생활 기종인 유개합, 대부완, 시루 등 자배 및 조리용품과 식기도 역시 파악되지 않았다. 이러한 사실은 제주 용천동굴이라는 곳이 당시 탐라 현지인은 물론 타지인(신라본토인)들이 지속적인 거주 및 취사 등의 일상생활을 하였던 공간도 아님을 보여준다.

정리하자면 수습된 토기 자료는 기종 별로 철저하게 규격화된 운반·저장기로 교역을 위한 도구임이 분명하다. 그리고 제주도(탐라) 자체에서 생산이 불가능한 회청색경질토기로만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유물의 기종과 편년으로 보건대 제주 용천동굴은 신라하대에 교역을 위해 내려온 ‘신라 상인집단<sup>37)</sup>’이 자신들의 상품과 안전을 담보하기 공간 즉

일종의 ‘물품저장소’로 추정이 가능하겠다. 이를 전제로 하여 다음절을 전개하고자 한다.

## 2. 토기 자료로 본 제주 용천동굴의 성격

제주 용천동굴의 이용집단인 신라 상인집단은 지금과 달리 항해술이 발달하지 않았던 당시로는 수시로 바다를 건너 내려오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때문에 경제적인 측면에서 유통의 효율과 안전을 위하여 지금의 제주시 오등동에 있는 ‘쿠팡물류센터’와 같이 다량의 상품을 미리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당연히 필요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이곳을 중심창고로 하여 인근에 자리하고 있는 종달리 일대를 주 무대로 하여 상업 활동을 전개해 나갔을 것으로 여겨진다. 종달리는 포구 주변으로 거대한 패총군을 형성하고 있으며 패총 내에서 재지계 유물은 물론 외래계 유물인 마한/백제계토기, 통일신라토기, 철기 등이 다량으로 출토되고 있다. 특히 외래계 유물의 집중은 당시 종달리 일대가 제주시 원도심권은 물론 서쪽의 곽지리 일대와 더불어 탐라시대 교역의 한 중심축이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 할 수 있다<sup>37)</sup>.

다시 돌아와서 그렇다면 제주 용천동굴집단 즉 당시 신라 상인집단은 바다 너머 육지(신라본토)에서 어떠한 상품을 가져와 이곳에 저장하고 교역소인 패총에서 탐라 현지인을 상대로 거래를 하였을까?

37) 박남수, 「Ⅲ. 경제와 사회-1.수공업과 상업의 발달」, 『한국사-9. 통일신라』, 국사편찬위원회, 200-204쪽 내용 요약. 그들의 구체적인 성격은 파악할 수 없지만, 시기적으로 혼란기인 신라하대에 이르면 사무역 성향이 강한 신라 상인들이 동아시아의 해상무역을 장악하고 이후 장보고의 해상세력으로 통합 발전하게 된다. 이 외 여러 논문에서도 신라 상인들의 활약상과 발전과정을 논하고 있다.(관련해서는 윤재운, 2003; 권덕영, 2006 등의 논문을 참고하길 바란다.)

38) 朴宰賢, 「濟州島 耽羅時代土器 研究」, 공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4.  
패총 내에서 출토된 유물은 대부분 탐라시대에 집중하고 있다. 때문에 종달리 패총은 탐라의 대외 무역의 한 축을 담당한 곳으로 볼 수 있겠다. 관련해서는 최성락·김건수, 2002; 박호성, 2021; 최성락, 2022 등의 논문을 참고하길 바란다.

주지하듯이 제주 섬은 조선시대를 시작으로 현재에 이르기까지 농업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된다. 하지만 고려시대(그 이전인 통일신라시대)만 해도 상황은 달랐던 것으로 해석된다. 고려 후기 학자 익재(益齋) 이제현(李齊賢)의 『익재난고(益齋亂藁)』에 수록된 칠언절구의 주석<sup>39)</sup>에서도 알 수 있듯이 척박한 지질조건에 의해 농업생산력은 낙후하였고 쌀과 도자기 등은 육지에 의존하였던 것을 보인다.<sup>40)</sup> 때문에 당시 탐라 현지인들에게 있어 그토록 간절했던 것은 자체 생산이 어려웠던 쌀<sup>41)</sup>, 소금, 철 등과 같은 생존에 필요한 생필품은 물론 탐라 정치적 엘리트들의 특수목적에 위한 술이나 각종의 기름, 향신료 등의 고급 물품 등도 포함되었을 것이 분명하다.

쌀은 현재까지도 도내에서는 밭벼의 일종으로 생산할 수 있는 곳이 아주 극소수로 한정되며 그마저도 타산이 맞지 않아 대부분 육지로부터 수입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그렇기에 쌀로 빚은 술 역시 전적으로 수입에만 의존했을 것이다. 소금은 조선시대에 들어서야 염전을 구축하였으며 철은 아예 산지 자체가 분포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러한 상품들은 대외 해상교역을 통해서만 유입이 되었을 것이고 그 매개체는 동굴의 유물과 같은 시기 즉 신라하대에 동아시아의 해상무역을 주름잡고 있던 신라 상인집단임이 분명하다. 이때 상기 상품을 실어오기 위한 도구가 제주 용천동굴에서 출토된 토기들이다. 더욱이 동굴의 특성 상 천연의 냉장고이기에 오래 두고 저장할 수 있다. 또한 복잡한 동굴의 구조는 그 자체가 보안장치가 되기에 상품의 안전을 담보해 주었을 것이다.

39) 『益齋亂藁』 卷4, 詩 “耽羅 地狹民貧 往時全羅之賈販 瓷器稻米者時至而稀矣”

“탐라는 땅이 비좁고 백성들이 가난하여 지난날에는 전라도의 상인들이 쌀과 자기를 싣고 왔으나 많지는 않았다.” 여기서도 상인이 언급된다.

40) 정근오, 「제주도 벼농사의 역사지리적 연구」, 제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4. 제주도의 지질 특성 상 물을 가둘 수 있는 논을 만드는데 제약이 많다.

41) 다만 쌀은 상식적으로 유적에서 출토된 토기로 운반하기보다는 과거에도 그랬듯이 벼짚으로 크게 가마를 엮어 운반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설령 재고가 동굴에 남겨졌다 하여도 벼짚과 쌀은 유기물이기에 그 흔적을 찾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면 반대로 신라 상인집단은 탐라 현지인들에게 이렇게 간절히 원하는 상품을 제공하면서 대신 이 섬에서 얻고자 했던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즉 신라 상인집단 그들의 교역 목적이 과연 무엇인가? 본래 교역이라 하는 것은 수요와 공급의 논리로 상호 간에 이해관계가 일치했을 때 발생한다. 따라서 탐라 현지인들은 신라 상인들로부터 이러한 상품을 구하는 대신에 이에 상응하는 대가(代價)를 치러야 했을 것이다. 이는 역으로 당시 신라본토나 주변에 널리 알려져 수요가 있는 물품 즉 탐라에서만 특별하게 생산되어 교환가치가 매우 높은 '탐라의 특산품'이 무엇인가의 문제로 귀결된다. 곧 탐라의 특산품이 과연 어떤 것이기에 당시 육지의 신라 상인들로 하여금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배를 타고 망망대해를 건너오게 하였는지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

탐라의 특산품과 관련하여 유적과 거의 동시기에 전해지는 기록으로는 이웃한 일본의 문헌 기록과 목간 자료를 꼽을 수 있다.

먼저 일본 '쇼소인(正倉院)' 소장 문서로 천평(天平) 10년(738)의 『주방국정세장(周防國正稅帳)』<sup>42)</sup>에 나타난 '탐라방포(耽耽<sup>43)</sup>羅方脯)'에 관한 내용이다. 기존 연구에 의하면 이 '탐라방포'를 말린 육고기의 일종<sup>44)</sup> 또는 전복살<sup>45)</sup>로 보고 있다. 다음으로 같은 곳 소장 자료인 헤이조쿄(平城宮) 다이라북외곽관아(內裏北外郭官衙) 쓰레기 구멍 SK820 출토 목간을 들 수 있다. 목간에는 천평 17년(745) 9월 '탐라복(耽羅鱔)'이 시마노쿠니 아고군(志摩國 英虞郡, 지금의 미에현 시마시 부근)으로부터 중앙에 공진되었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sup>46)</sup>. 마지막으로 『연희식(延

42) “耽羅方脯肆具價稻陸十束具別十五條”

(日本 東大寺 ‘正倉院’ 소장 『大日本古文書』 編年 2-138 「周防國正稅帳」)

43) 일본측 기사에서는 탐라에서 ‘耽’을 ‘耽’으로 기록하고 있고 있다.

44) 森公章, 「耽羅方脯考」, 『고대일본의 대외인식과 통교』, 吉川弘文館, 1988.

森公章은 탐라방포를 『三國志』 魏書 등의 東夷傳 韓條에 나타난 주호에 언급된 즉 소, 돼지, 사슴 등의 육고기로 만든 물품으로 보고 있다.

45) 秦榮一, 「古代耽羅의 交易과 「國」 形式考」, 『濟州島史研究』 3, 濟州島史研究會, 1994. 森公章과 달리 진영일은 『延喜式』 券24 主計上式の 調를 참고하여 ‘탐라산 말린 전복살’로 해석하고 있다.

46) “志摩國英虞郡雖郷 戶主大伴部國万呂戶口同部得鳴御調 耽羅鱔六斤天平十七年九月 〇〇”(平城宮木簡 제344호.)

喜式』권24 주계상식(主計上式)에도 ‘탐라복’을 히코노쿠니(肥後國, 지금의 구마모토현)에서 18근, 분고노쿠니(豊後國, 지금의 오이타현 남부)에서 39근을 바쳤다는 내용<sup>47)</sup>이 있다<sup>48)</sup>. 세 기록으로 볼 때 당시 탐라의 특산품으로는 전복이나 육고기를 재료로 한 일종의 말린고기임을 알 수 있다. 특히 탐라전복이 일본 중앙까지 보고되고 진상되었다는 사실은 이 물품이 당시 명품 중에서도 명품임을 시사한다<sup>49)</sup>.

한편, 시기는 다르나 탐라의 특산품(물산)과 관련 박남수는 탐라가 고려 조정에 바친 방물 물품을 정리하여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즉 굴(橘子)(문종 6년(1052) 3월), 우황(牛黃)·우각(牛角)·소 가죽(牛皮)·소라 또는 전복의 살(螺肉)·비자(榧子)·해조(海藻)·귀갑(龜甲)(문종 7년(1053) 2월), 진주(문종 33년(1079) 11월)이다. 그는 이 물품들이 고려 이전인 통일신라와의 교역 과정에도 주요한 방물이거나 교역품이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sup>50)</sup>.

앞서 기록된 내용을 정리하면 탐라의 특산품은 결국 전복, 소 제품류, 굴, 해조류와 진주, 약재로 쓰인 비자, 귀갑 등으로 요약된다. 그리고 이 물품들은 고려 조정에 공납하거나 일본 중앙의 물품 기록인 정세장과 왕궁의 목간에까지 기록될 정도이니 당시 그 가치가 매우 높은 고급상품임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탐라의 특산품은 당시 탐라 현지인이 요구하였던 자신들의 상품에 대한 대가의 이상으로 충분하다 할 수 있겠다. 이렇듯 신라 상인집단은 탐라에서 자체 생산이 어려운 쌀,

47) 高昌錫, 『耽羅國史料集』, 新亞文化社, 312-313쪽. 延熹式 主計上, 調 “耽羅鰾州九斤(肥後國)·耽羅鰾十八斤(豊後國)”

48) 임경준, 「近世 동아시아 해역질서와 ‘全鰾’의 길—元明交替期の 濟州島 특산물의 교역과 진상—」, 『동국사학』 70, 2021, 104쪽. ‘耽羅鰾’이 전복의 종류인지, 產地인지는 논쟁이 있지만 분명 탐라와 관련이 있다는 것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淸武雄二, 『アワビと古代國家: 『延喜式』にみる食材の生産と管理』, 平凡社, 2021를 인용).

49) 渡辺 晃宏, 「<耽羅鰾>めぐるめぐる 耽羅と日本の 交流」, 『고대 탐라문화의 수수께끼—탐라복 耽羅鰾 도라악 度羅樂—』, 2018 탐라사 국제학술대회, 2018, 70쪽.

50) 박남수, 「신라의 동아시아 교역과 탐라」, 『고대 동아시아와 탐라』,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신라사학회 공동학술대회 자료집, 2017, 137쪽.



술, 소금, 철 등의 상품을 신라본토로부터 들여와 전복 등의 탐라의 특산품과 교환하고 다시 이 물품을 본토나 일본 등으로 팔아 이윤을 챙겼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그들의 활동과정은 혼란기인 신라하대라는 시대적 상황이기에 충분히 가능한 것이다.

이상과 같이 제주 용천동굴에서 출토된 토기의 분석과 같은 시기의 기록을 통해 제주 용천동굴 및 동굴 이용집단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제주 용천동굴은 8세기 후반에서 9세기 전반에 신라 상인집단이 국제적으로 알려진 탐라의 특산품과 교환하기 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가져온 상품이나 그들이 사들인 탐라의 특산품을 보관하기 위한 ‘물품저장소’로 여겨진다. 그리고 동굴에서 출토되는 토기는 상품을 저장하고 운반하기 위한 도구이다. 토기는 내용물과 함께 인근에 자리한 대규모 교역소인 종달리패총 등에서 교환(소비)되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다만 유물의 편년으로 볼 때 제주 용천동굴은 9세기 전반 이후로는 그 기능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 IV. 맺음말

본고는 제주 용천동굴 출토 토기 자료를 검토하여, 제주 용천동굴 및 동굴을 이용한 집단의 성격과 그들의 목적 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토기의 검토는 분포 양상과 기종 분석을 통해 파악하였다. 토기가 동굴 전 구간에 걸쳐 확인됨에 따라 동굴의 이용집단은 동굴 전체를 활용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기종은 모두 통일신라시대에 제작된 토기로 운반/저장기에 한한다. 이를 통해 제주 용천동굴의 성격은 8세기 후반에서 9세기 전반경에 탐라로 교역을 하기 위해 내려온 신라 상인집단의 ‘물품저장소’로 이해할 수 있었다. 이를 전제로 하여 같은 시기에 기록된 문헌 자료를 살펴 신라 상인집단과 탐라 간 교역체계의 일면을 살피고자 하였다. 그 결과 신라 상인집단은 탐라에서 자체 생산이 어려운 쌀, 술, 소금, 철 등의 상품을 신라본토로부터 들여오고 탐라

현지인들에게서 당시 국제적으로 알려진 전복, 소 제품류, 꿀, 해조류 등 같은 탐라 특산품과 교환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이 물품을 다시 본토나 일본 등으로 팔아서 이윤을 챙겼을 것으로 추정된다.

결국, 제주 용천동굴에서 출토된 토기 자료는 당시 신라 상인집단과 탐라 간 교역체계 속에서 동굴의 성격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 자료라 여겨진다.

본고는 제주 용천동굴에서 출토된 유물의 분석을 중심으로 기종과 편년 그리고 시대적 상황을 통해 동굴 및 이용집단의 성격을 논하고자 하였다. 다만 본고는 제시된 보고서의 도면을 따를 뿐 당시 조사원들이 목격한 동굴의 입체(구조)적인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지 않은 점에서 분명 여러 한계를 지닌다. 차후 문제 제기는 물론 제주 용천동굴에 대한 발전된 다양한 견해를 기대해 보면서 본고를 마치고자 한다.

참고문헌

『益齋亂藁』

강창화, 「9. 고고학」, 『2009 용천동굴 종합학술조사 보고서』, 제주특별자치도·(사)한국동굴연구소, 2009.

高昌錫 『耽羅國史料集』, 新亞文化社, 1995.

國立文化財研究所, 『新羅 王京 發掘調査報告書 I (本文)』, 2002.

국립제주박물관, 『제주 용천동굴유적-제주 용천동굴 학술조사보고서』, 2018.

박남수, 「Ⅲ.경제와 사회-1. 수공업과 상업의 발달」, 『한국사-9.통일신라』, 국사편찬위원회, 2013.

\_\_\_\_\_, 「신라의 동아시아 교역과 탐라」, 『고대 동아시아와 탐라』,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신라사학회 공동학술대회, 2017.

박미현, 「경주지역 삼국~통일신라시대 瓶 편년과 전개 양상」, 『영남고고학보』 90, 영남고고학회, 2022.

朴淳發, 「遺物에 대한 考察-土器·磁器」, 『聖住寺』, 忠南大學校博物館, 1998.

朴宰賢, 「濟州島 耽羅時代土器 研究」, 공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4.

박재현, 「토기로 본 제주지역 탐라후기의 대외관계」, 『호남고고학보』 69, 호남고고학회, 2021.

성림문화재연구원, 『慶州 花谷里 生産遺蹟』, 2012.

신나현, 「고대장군의 변천과 사용」, 『한국상고사학보』 105, 한국상고사학회, 2019.

심수정, 「二聖山城 出土 新羅土器 研究」,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유병하·최지향, 「호남지역 선사와 고대의 제사」, 제22호 호남고고학회 학술대회, 호남고고학회, 2014,

윤상덕, 「인화문토기」, 『중앙문화재연구원 학술총서 20-신라고고학개론 下-』, 진인진, 2017.

李東憲, 「統一新羅土器 研究」,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2.

- 이청규, 『해상활동의 고고학적 기원과 전개』, 景仁文化社, 2016.
- 임경준, 「近世 동아시아 해역질서와 ‘全鰭의 갈- 元明交替期の 濟州島 특산물의 교역과 진상 -」, 『동국사학』 70, 2021.
- 정근오, 「제주도 벼농사의 역사지리적 연구」, 제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4.
- 濟州大學校博物館, 『濟州市龍潭洞遺蹟』, 1993.
- \_\_\_\_\_, 『濟州郭支貝塚』, 1997.
- \_\_\_\_\_, 「濟州高內里遺蹟」, 2008.
- 제주문화유산연구원, 『제주 삼도동유적(북초등길 22번지, 북초등교 다목적회관부지)』, 2016.
- 제주특별자치도·(사)한국동굴연구소, 『2009 용천동굴 종합학술조사 보고서』, 2009.
- 秦榮一, 「古代耽羅의 交易과 「國」 形式考」, 『濟州島史研究』 3, 濟州島史研究會, 1994.
- 한국문화재단·제주문화유산연구원, 『2012년도 소규모 발굴조사 보고서ⅩⅣ-제주 3-』, 2015.
- 한혜선, 「羅末麗初 陶器扁球瓶의 연원과 자기로의 변안」, 『韓國中世考古學』, 창간호, 2017.
- 洪潛植, 「日本 出土 新羅土器와 羅日交涉」, 『한국상고사학보』 46, 한국상고사학회, 2004.
- 홍보식, 「Ⅱ. 토기-15. 일본 藤原京址 출토 신라토기」, 『세종문화재연구원 학술총서』 4, 統一新羅時代 歷年代資料集, 학연문화사, 2013.
- \_\_\_\_\_, 「물질자료의 편년 1. 토기」, 『중앙문화재연구원 학술총서』 43, 통일신라 고고학개론, 진인진, 2019.
- 渡辺晃宏, 「<耽羅鰭>めぐるめぐる 耽羅と日本の 交流」, 『고대 탐라문화의 수수께끼-탐라북 耽羅鰭 도라악 度羅樂-』, 2018 탐라사 국제학술대회, 2018.
- 森公章, 「耽羅方脯考」, 『고대일본의 대외인식과 통교』, 吉川弘文館, 1988.

宗像大社, 『海の正倉院 宗像 沖ノ島神寶』, 平成 4(1991).

그림 및 사진 출처
------------

<그림 1~2>

국립제주박물관, 『제주 용천동굴유적-제주 용천동굴 학술조사보고서』,  
2018

<사진 1~5>

국립제주박물관, 『제주 용천동굴유적-제주 용천동굴 학술조사보고서』,  
2018

<사진 6>

濟州大學校博物館, 『濟州市龍潭洞遺蹟』, 1993.

<사진 7>

宗像大社, 『海の正倉院 宗像 沖ノ島神寶』, 平成4(1991).

ABSTRACT

## Meaning of pottery data excavated from Jeju Yongcheon Cave

Park, Jae-hyeon\*

This paper was written to find the meaning of pottery data excavated from Jeju Yongcheon Cave. To this end, pottery data was reviewed to suggest the chronicle and characteristics, and a new conclusion was found by examining the records of the same period.

Since pottery is a trace of people, the distribution shows that the cave user group used the entire cave. The types of pottery are limited to transport and storage containers made during the Unified Silla Period. Therefore, Jeju Yongcheon Cave became a 'Distribution Warehouse' for a group of Silla merchants who came down to trade with Tamra in the late 8th century or early 9th century, and the excavated potterys are judged to be a tool for this. The Silla merchant group, the main body of the cave, brought in products such as rice, alcohol, salt, and iron that were difficult to produce in Tamra from mainland Silla and stored them in the cave. And they exchanged special products such as abalone, cow products, tangerines, seaweed, pearls, and medicinal materials(Torreyia nucifera(榧子), tortoise shell(龜甲) from the locals of Tamra. After that, it is estimated that these items were resold to the mainland or Japan to make a profit.

In the end, the meaning of pottery materials excavated from Yongcheon

---

\* Jeju Cultural Heritage Institute



Cave in Jeju is considered to be an important material that provides a glimpse into the nature of the cave in the trade system between the merchant group of Silla and Tamra at the time.

Key-words: Jeju Yongcheon Cave, Pottery from the Unified Silla Period, Silla merchant group, Distribution Warehouse

논문투고일 2023. 1. 17.

심사완료일 2023. 2. 15.

게재확정일 2023. 2. 22.